



4면

전북미래학교 운영 성과보고회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음 11월 6일) 제3640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미래발전 이끌 30개 국책사업 발굴

### 차지도,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 개최 스마트센서 클러스터 구축 등 총 2조 5203억 규모 김관영 도지사 “국가 사업화에 전력 기울일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들을 발굴해 최종 확정하는 자리로, 전북연구원과 전문가, 도 실·국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총 10개 분야에서 30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규모는 약 2조 5,203억 원으로,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에 기여할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기업유치분야에서는 국립 경제·금융교육연수원 건립(650억)이 발굴됐다. 미래첨단산업분야에서는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500억)과 스마트센서 클러스터 구축(1,000억)이 선정됐다.

농생명분야에서는 인공공통 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300억)과 첨단 영장류 생명연구지원 보존·연구 인프라 구축(300억)이 포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중부권 K-치유관광벨트 구축(5,000억)과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335억)이 주요 사업으로 제안됐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이 발굴됐고, 새만금해양수산분야에서는 갯벌식물 아쿠아팜 조성(1,000억)이 제안됐다.

도민안전분야에서는 레이저 센서 기반 내수침수 예측 통합관제시스템 구축(300억)이 포함됐으며, 환경산업분야에서는 군산분지 CCS 허브 구축(1,000억)이 선정됐다.

복지분야에서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500억), 교육·외국인분야에서는 서부권 해양환경교육원 설립(300억)이 발굴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구체화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에서 제안한 72건의 사업 중 29건이 선정됐으며, 해당 부서와 관계기관의 보안 작업을 통해 사업화와 국가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국책사업 발굴은 전북의 강점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을 제안한 과정”이라며, “발굴된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5일 전북특별자치도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 추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도내 시장·군수 “대통령 사퇴로 민주국가 회복해야”

### 尹 비상계엄 관련 성명 발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불가 민주적 가치 수호 위해 시민들과 연대해 탄핵으로 맞설 것”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을 익산시장·사진)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 국가로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충격과 혼란에 휩싸

이게 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독재행위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끝까지 정권 유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중대한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해 탄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을 협의회장은 “우리는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군에 쫓기다 고인이 된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를, 계엄군의 총알을 피하지 못한 원광대 학생 임권수 열사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남원 출신의 김주열 열사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협의회장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노력의 결실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자”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 2036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D-85... 도, 유치 붐업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치 ‘붐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2036 하계올림픽 개최 계획서 선행평가가 종료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체육회가 선발한 11명의 평가위원이 개최 희망도시의 개최계획서를 서면 검토한 절차로, 전북자치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선행평가를 기반으로 2025년 1월 6일부터 진행될 현장평가 준비에 돌입했다.

현장평가에서는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해 주요 경기장 실사 및 사전 브리핑 등 세부 전략을 통해 도의

### 평가위 서면평가 종료... 내년 1월 진행 현장평가 준비 돌입 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협력 확대

유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올림픽유치추진단장인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실국이 참여하는 ‘올림픽 유치 붐업 계획 보고회’를 이날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실국이 참여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방안을 공유했다. SNS 숏폼 영상·웹툰 시리즈·방송 캠페인 등 연령별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제 및 출항인

설명회와 연계한 각종 참여형 행사에 대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재계 및 체육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올림픽유치자문위원회’ 출범 등 대외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대한체육회 현장평가 이후 열리는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갖는 등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한 열의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전북의 고유 경쟁력과 올림픽 유치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의 올림픽 유치 지지선언도 나왔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는 지난 4일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2036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권기봉 의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전”이라며, “이 도전은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尹 탄핵안, 7일 오후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다.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